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역주행'

8-9월 두달 연속 ↑ ...주담대 상승 예대마진 ↑ 한은 "은행이 대출 관리 가산금리 올린 결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주면에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시장금리를 거슬러 뛰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이익 기반인 이턴바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전월(4.08%)보다 0.15

포인트(p) 높아졌다. 8월(+0.02%p)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51%에서 3.74%로 0.23%p나 올랐다. 역시 2개월 연속 오름세일 뿐 아니라 2022년 9월(+0.44%p)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신용대출(5.87%) 역시 0.22%p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는 9월 3.22%로 8월과 같았지만, 은행의 고정금리는 약 0.23%p 올랐다"며 "이 상승 폭의 대부분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의 영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PIX)는 적용월 기준으로 0.08%p 정도 하락했지만, 같은 이유로 변동금리도 0.04%p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기업대출 금리(4.77%) 역시 0.10%p 상승했다. 대기업 금리(4.81%)와 중소기업 금리(4.74%)가 각 0.03%p, 0.15%p 높아졌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에 더해 지표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91일) 금리도 소폭 올랐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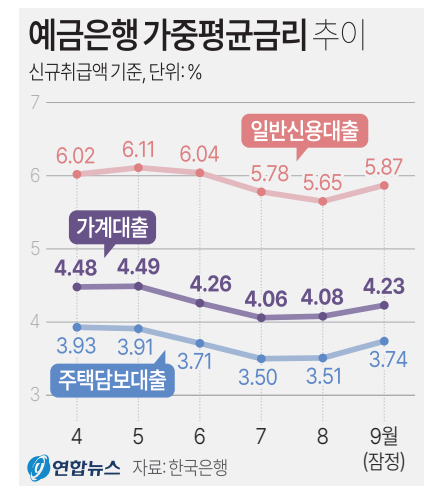
이다.

종합적으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48%에서 4.62%로 0.14%p 올랐다. 6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3.40%로 8월(3.35%)보다 0.05%p 인상됐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41%)가 0.05%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6%)가 0.04%p 각각 높아졌다.

김 팀장은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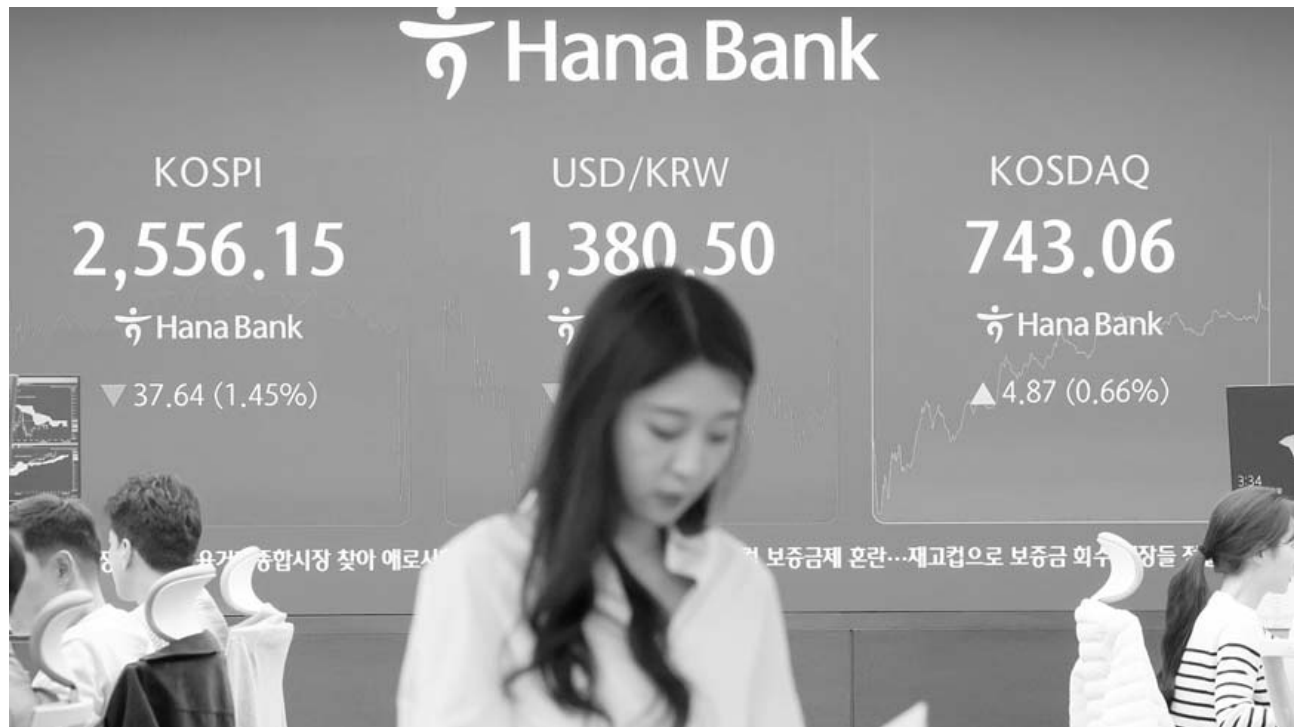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2%p로 전월(1.13%p)보다 0.09%p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예금 금리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7%p에서 2.24%p로 0.03%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55%), 상호금융(3.38%), 새마을금고(3.55%)에서 각 0.05%p, 0.06%p, 0.07%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3.73%)만 0.09%p 올랐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04%→0.65%p), 신용협동조합(5.42%→0.03%p), 새마을금고(4.93%→0.20%p)에서 떨어지고, 상호금융(5.25%→0.01%p)에서 상승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하락...코스닥 상승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64포인트(1.45%) 내린 2,556.15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4.87포인트(0.66%) 오른 743.06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현금 없는 상점 늘어나면...‘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한은 보고서...“새 지급결제 수단 도입 시 소외계층 고려해야”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상점·서비스가 확산할 경우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에게 불편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소 과장과 박재민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31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 수요 간의 관계'(BOK 경제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자들은 한은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자료,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자료,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분포 자료를 결합해 회귀분석

을 실시했다.

또한 디지털 방식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비효율 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이용해 소비자를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코로나19처럼 비대면 결제방식이 외생적으로 강제되는 상황에서도 현금을 계속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은 평균 16%였다.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26%)보다 낮은 수준이다.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늘릴 확률 역시 32%로,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46%)에 비해 14%포인트(p) 낮았다.

연구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과 서비스가 늘어나면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여타 연령층보다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소비자 후생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현금 결제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도입 시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고용부 목표지칭, 임금체불 집중청산 '총력'

체불임금 전년비 16.5% ↑ ...연말까지 단속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목표지칭은 31일 “오는 12월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24년 9월말 기준 체불임금액은 1조5천2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5%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목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체불임금액이 증가한 가운데 체불임금 청산에 집중하고 동시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표지칭은 체불사

업주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발생 체불을 집중 청산하고 체포·구속 등의 강제수사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재희 목표지칭장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 운영을 통해 집중 청산해 미정산액을 최소화하고, 임금체불 엄단과 홍보 강화로 체불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표=정해선 기자

콘진원 '佛 K-박람회' 성료...2억4천600만달러 수출상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프랑스 K-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첫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K-콘텐츠와 연관산업 제품 B2C 전시·체험·공연부터 국내 기업과 유럽 바이어 간 B2B 수출상담까지 총망라했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K-박람회'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식품, 수산물,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유망 제품

·서비스와 K-콘텐츠의 해외 동반수출을 꾀하는 한류 종합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무역협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수출상담 결과 802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과 2억4천6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액을 달성, 11건의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유럽 권역 첫 개최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 /안태호 기자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5년간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청년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 대상 청년(약 600만명) 4명 중 1명이 가입한 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기준 가입 유지율은 8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저금리 상품 가입유지율은 평균 45%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